

아이디어톤

8조 채서영

인코딩 오류로 일어나는 뽕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만듭니다.

1. 서비스 이름

뽕어번역기

2. 서비스 설명

- 일본어를 읽을 때 인코딩 오류로 뽕어가 만들어지고는 합니다. 이러한 언어를 인코딩 방식을 바꿔 번역해 주는 것이 바로 ‘뽕어 번역기’입니다.
- 문자 깨짐 예시: <https://namu.wiki/w/%EB%AC%B8%EC%9E%90%20%EA%B9%A8%EC%A7%90>

3. 서비스 기능 구성

- 번역기 화면: 번역하고자 하는 String input, 번역된 String output, 번역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기능.
- +) 인코딩 방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4. 부가설명(타겟팅, 시장분석, 경쟁사 분석, 차별점 등 자유롭게 기재)

- 기존 인터넷에 있는 뽕어번역기(<https://api.dcmys.kr/%EB%B7%81%EC%96%B4%EB%B2%88%EC%97%AD%EA%B8%B0/>)는 인터페이스가 사용 방법에 있어 불편합니다. 또한, 문자 깨짐의 케이스 중 ‘뽕어’만 다를 수 있으므로, ASCII와 UTF-16을 변환해 주는 번역기 등을 만들면 사람들이 더 폭넓게 번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문자 깨짐 현상이 단 하나의 번역기만 사용할 수 있는지, 아니면 여러 가지 케이스로 번역해야 하는지를 더 조사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인코딩 방식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존 번역기와 차별화되어 사용될 것 같습니다.